

개교 50년, 민족교육의 산실 서울교육대학교

황광수
서울교대 총장



1. 개교 50년, 초등교원 양성의 중심 대학으로 성장

우리 대학은 그 동안 반 세기의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나라의 교육 발전은 물론 초등 교육과 민족 교육의 산실로서의 중대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 왔다. 우리 대학은 광복 이후 전국적으로 개교된 초등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목적에 의해 1946년 5월 ‘경기 공립 사범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다.

처음 학교가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미처 건물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 중학교나 용산

고등학교의 가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1948년에 비로소 성동구 행당동에 교육의 터전을 세울 수 있었다. 이후 1949년 10월에 ‘국립 서울 사범학교’로 개칭하여 계속 초등교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1953년 3월에는 ‘부속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교원 양성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어 1962년 3월에는 초등교사의 양성 체제를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서울 사범학교를 2년제 대학 과정으로 개편하였으며, 이듬해 서울 교육대학으로 독립하게 되어 초등교원 양성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굳건히 하게 되었다. 또한 1977년 2월에는 전 교대인의



▲ 개교 50주년을 맞은 서울교대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교육대학원을 설립, 초등교원 양성 교육의 전문성 제고에 한층 기여하게 되었다.

숙원이었던 새 캠퍼스가 완공되어 서초구 서초동의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그후 1981년 3월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어 비로소 명실상부한 초등교원 양성 대학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학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 나라 초등 교육의 중추로서 그리고 민족 교육의 산실로서 성장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발전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올해 3월에는 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 내에 교육대학원을 설립, 개원함으로써 초등교원 양성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일층 기여할 수 있는 체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 현 황

초등교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 대학은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실업교육, 초등교육, 영어교육의 11개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초등 국어교육, 초등 사회과교육, 초등 과학교육, 초등 체육교육 전공 등 4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공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대학의 재학생수는 주간제 1,994명과 계절제 467명을 포함하여 총 2,461명이고(1996년 2월 기준),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수는 대학 소속 교원 97명과 부속 초등학교 교원 31명을 포함하여

총 128명에 이르고 있으며(1996년 1월 기준), 직원수는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기성회직 등을 포함하여 총 96명이다(1996년 2월 기준).

본교가 개교 이후 지난 2월까지 초등교원으로 배출한 졸업생은 속성과, 강습과, 연수과, 부설 초등교원연구소 등의 수료자와 사범학교(본과), 2년제 교육대학, 4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을 모두 포함하여 총 20,305명이다. 한편, 지난 5월 개교 제50주년 기념식에서 전쟁 등의 이유로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한 23명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 바 있다.

본교의 부설 연구소로 학생생활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필요한 원활한 지도와 상담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을 닦는 데 유익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기교육 연수센터와 초등교육자료 센터 등의 부설기관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실기교육 연수센터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기 교과에 관한 실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음악, 미술, 체육, 어학 등에 관한 실기교육의 현황 연구 및 지도 방법의 개발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적 기술적 지도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또한 초등교육자료 센터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효과적인 학습지도에 도움이 될 각종 자료의 개발과 공급을 목적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초등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대학이 지역 사회의 교육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이 사회교육원에서는 '부모역할', '자녀 지도' 등의 강좌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이 나라 초등교육을 담당할 유능한 초등교원의 양성뿐만 아니라 국민 교육의 중추로서 민족 교육의 산실로서의 몫을 충실히 해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3. 전인적 인격 교육을 통한 교사 양성

우리 대학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대학으로서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며 확고한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 교직 전문성을 한 몸에 지닌 전인적 인격을 구비한 교육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학이다. 따라서 본 대학의 교육 목적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아래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고 유능한 교사로서의 건전한 사상을 구비하며, 지도적인 인격과 기능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대학은 교직이라는 전문 직업을 목표로 우리나라 제2세 국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길러 국민의 사표로서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 봉사할 수 있는 교육자를 양성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부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첫째, 한국을 사랑하고 겨레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한국혼을 배양한다. 훌륭한 교육자는 먼저 훌륭한 국민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사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 사회 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배양한다.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공동 이념이며, 민주주의 사회 생활은 국민의 생활을 질서와 번영으로 인도하여 줄 이상적인 생활방식인 것이다.

셋째, 교사로서 지녀야 할 건전한 인격을 도야하고 교육에 불타는 헌신적 생활 태도를 확립시킨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로서 교사의 인격은 그대로 학생에게 감화되므로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예지와 교직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넷째, 아동의 성장 발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아동은 끊임 없이 성장하고 발달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먼저 어린이의 발달 과정과 개성, 욕구 등의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지도를 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각 교과를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고 지도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교사가 어린이들의 교과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교사 자신이 학습에 대한 실력은 물론 활동적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섯째, 보다 나은 교직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생활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자만이 스승이 될 수 있다. 교사는 자기 성장을 위한 부단한 자기 연찬을 필요로 한다.

일곱째, 교직의 사명과 존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하여 교육자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한다. 교직은 하나의 전문 직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직업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 교육의 성패는 곧 나라의 성패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교직의 사명감과 존엄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한다.

4. 발전 방향 : 21세기 세계적 수준의 교원 양성 대학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이다. 지금까지 본교는 한국 초등교육의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교직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사명감을 지닌 유능한 교사를 양성해 온 데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학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초등교원 양성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대학은 21세기에 세계적 수준의 교원 양성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의 새로운 질적 변화와 대학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

먼저 첨단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교육 시설의 확충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의 측면이다. 흔히, 우리의 교육 현장을 '19세기 강의실, 20세기 교수, 21세기의 학생'으로 비유해 온 때 있는 지적이 있다. 비단 이런 지적만이 아니더라도 첨단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첨단 교육시설의 확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교는 첨단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교육공학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각 심화과정별 전용 강의실 마련도 이러한 교육시설 확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의 올바른 교육은 이

러한 첨단 교육시설의 확보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정보화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교육과 새로운 인간상의 창출이 보다 근원적인 교육적 목표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현재 새로운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개편 작업이 진행중이며, 새로운 교육과정은 첨단 컴퓨터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강화는 물론 인간화 교육의 실현을 기조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개방화·세계화·다원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은 학문의 국제화 추세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의 여러 교육대학들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교수·학생의 인적 교류는 물론 교육 정보의 교환과 토론을 위한 각종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해당 대학들과의 어학 연수 프로그램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미국의 웨스트체스터 대학, 일본의 효고 교육대학, 중국의 북경 사범대학, 러시아의 모스크바 사범대학, 독일의 칼스루에 교육대학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대학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터전의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이 위치한 서초동 일대는 번잡한 상업 중심지로 탈바꿈하여 교육적 환경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2만 6천여 평의 부지로는 우리 대학의

장기적 발전 계획에 비추어 협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새로운 역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터전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이 다가오는 세기에 세계적 수준의 교원 양성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점에 비추어 앞으로의 세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흔히 말하는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적합한 인재의 양성이 국가 발전의 관건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정부에서는 교육에 대한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교육은 그 나라 교육의 근본이며, 모든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원 확보의 목적으로 '발전기금 조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교육대학교의 동문, 교직원 여러분과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